

오타니 5경기 연속 홈런 다저스 사상 7번째 기록



▲ 오타니 쇼헤이가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23일 미네소타 트윈스와 경기에서 5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구단 최고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날 경기는 프레디 프리먼이 9회 말 끝내기 안타로 다저스가 트윈스를 4-3으로 제압했다.

경기의 포문을 연 것은 오타니였다. 2회 첫 타석에서 트윈스 선발 크리스 패택을 상대로 0-2 불리한 카운트에 몰렸지만, 패택의 79마일

커브볼이 한가운데로 몰리자 이를 놓치지 않고 센터 담장을 넘기는 411피트(약 125m) 솔로 홈런을 날려 다저스가 1-0으로 앞서갔다.

이 홈런으로 오타니는 다저스 역사상 5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한 7번째 선수가 됐다. 이전 기록 보유자에는 맥스 먼시, 작 피터슨, 맷 캠프, 에이드리언 곤잘레스, 손 그린, 로이 캠퍼벨라가 있다. 현재 오타니는 내셔널리그(NL) 홈런 부문에서 37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1위인 칼 물리(39개)와 불과 2개 차다. 아론 저지와 에우제니오 수아레스는 각각 36개의 홈런으로 그 뒤를 쫓고 있다.

경기는 9회 말까지 팽팽했다. 다저스는 3-2로 뒤진 상황에서 2사 만루의 기회를 잡았다. 타석에 선 프레디 프리먼은 트윈스 구원 투수 그리핀 잭스의 96마일 패스트볼을 왼쪽 외야로 강하게 밀어쳤다. 공은 외야수 해리슨 베이더의 글러브를 스치며 빠져나가 안타가 됐다.

3루 주자 무키 베츠가 홈을 밟으며 동점을 만들었고, 2루에 있던 오타니가 곧바로 홈으로 달려와 승리의 득점을 올렸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프리먼과 오타니의 활약에 열광했다.

로키스, 220경기만에 첫 무실점 경기 MLB 현대사 최장 'No 셋아웃' 불명예 증지부

콜로라도 로키스가 마침내 220경기 만에 무실점 경기를 기록했다. 로키스는 23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6-0으로 제압하며, 2024년 5월 15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8-0으로 꺾은 이후 처음으로 셋아웃을 기록했다. 이로써 MLB 현대사(1900년 이후) 최장 'No 셋아웃' 기록을 마감했다.

MLB.com에 따르면, 로키스의 220경기 'no 셋아웃' 기록은 1893년~1896년 워싱턴 세너터스(383경기)와 1897년~1899년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피펙토스(298경기) 이후 세 번째로 긴 기록이었다. 그러나 당시 야구는 현재와 전혀 다른 경기 양상을 보였던 시절이다.

역사적 승리의 주역은 선발 투수 태너 고든과 볼펜 투수 지미 허켓, 타일러 킨리였다. 세 투수는 합계 5피안타 무실점으로 경기의 흐름을 지배했다. 태너 고든은 6이닝 4피안타 3탈삼진 3볼넷 무실점을, 지미 허켓은 2이닝 1피안타 무실점을, 타일러 킨리는 1이닝 무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고든은 이날 AAA 엘버커키에서 폼업된 당일 선발로 등판했다. 헤르만 마르케스가 오른쪽 이두근 건염으로 15일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생긴 기회였다. 이번 경기는 고든의 통산 12번째 선발 경기였으며, 올 시즌 로키스 선발 투수가 6이닝 이상 무실점을 기록한 것은 네 번째였다.

워런 셰퍼 로키스 감독 대행은 "그런 기록이 있는 줄도 몰랐다. 220경기는 정말 긴 시간이다. 오늘 고든 덕분에 그 기록을 끊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 팀 완봉승을 거둔 콜로라도 로키스 배터리. 사진=AP/연합뉴스

이번 셋아웃은 로키스가 최악의 시즌을 보내는 와중에 얻은 귀중한 위안이다. 로키스의 시즌 성적은 26승 76패로 여전히 MLB 전체 최하위다. 그다음으로 성적이 나쁜 팀은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36승 66패를 기록하고 있다.

로키스는 지난해 화이트삭스가 세운 최다 패배 기록(41승 121패)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세로는 시즌 41승 120패가 전망된다. 팀 득실차는 -247로, 시즌 종료 시 -392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1932년 보스턴 팀의 -345를 넘어 현대 야구 최악의 기록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로키스는 최근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5월 말 한 자릿수 승수에 머물렀던 팀은 6월 이후 17승 27패를 기록하며 다소 반등했다. 지난주 미네소타 트윈스를 상대로 2승 1패를 거둔 데 이어 이번 카디널스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로 첫 연속 시리즈 승리를 챙겼다.

Happy Hour

Dine in Only (3시부터)

해물파전	\$12.99
감자탕 전골 + 소주 1병 (콤보)	\$29.99
곰창 대창구이 + 소주 1병 (콤보)	\$26.99
곰창 전골 + 소주 1병 (콤보)	\$29.99

All Day Promotion

따로 국밥, 설렁탕 \$9.99

아테시아점

ARTESIA

무봉리 토종 순대국

MOOBONGRI

\$6.99

(소주, 맥주, 막걸리)

무봉리 토종 순대국

MOOBONGRI

T.562.403.4635

Ziggle Korean BBQ
몰 안에 위치

12246 South St.
Artesia, CA 90701